

“호랑이 웃고, 사자 울고” KS성패 가른 ‘외인 존재감’

한국시리즈

KIA 외국인 투타 3인방 맹활약
네일·라우어 3경기서 15.2이닝
소크라테스는 KS 5타점·4득점

삼성 코너 이탈에 선발진 구멍
외로운 레예스… 디아즈 아쉬움



야구와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외국인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느냐가 한 해 성적을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역시 외국인들의 활약에서 희비가 갈렸다. 외국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낸 KIA타이거즈는 승승장구하며 웃었고, 외국인들에 아쉬움이 컸던 삼성라이온즈는 고전했다.

앞서 정규시즌에서는 양 팀 외국인들의 존재감이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KIA는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시즌을 완주했고, 삼성은 투수 데니 레예스가 시즌 내내 자리를 지켰다.

또 KIA는 투수 제임스 네일이 8월 말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 골절로 정규 시즌을 조기 마감했고, 삼성은 투수 코너 시블드가 8월 중순 휴식 차원에서 열흘간 부상자 명단에 오른 뒤 9월 중순에는 어깨(견갑골) 통증으로 시즌 아웃됐다.

양 팀이 외국인 한자리를 두고 교체 카드



제임스 네일

· 1차전 50이닝 1실점
· 4차전 5.20이닝 2실점

에릭 라우어

· 3차전 50이닝 2실점

소크라테스 브리토

15타수 4안타 5타점 4득점

를 활용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KIA는 투수 윌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캠 알드레드를 영입한 뒤 에릭 라우어로 교체했고, 삼성은 내야수 데이비드 맥키넌을 외야수 루벤 카데나스로 교체한 뒤 내야수 르윈 디아즈로 한 번 더 교체했다.

하지만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양 팀의 희비가 교차됐다. KIA는 엔트리에 네일과 라우어, 소크라테스를 모두 포함한 반면 삼성은 코너가 플레이오프에 이어 한국시리즈도 합류가 불발되며 레예스와 디

아즈만 발탁됐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모국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하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너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 재활에 매진했으나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몸 상태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며 끝내 복귀하지 못했다.

반면 네일은 응급 수술을 받은 뒤 회복과 재활 등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했다. 구단 지정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뒤 웨

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으로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라이브 피칭과 연습경기 등 실전 등판에서도 몸 상태에 합격점을 받았다.

세 명의 외국인을 활용한 KIA와 두 명의 외국인을 활용한 삼성의 차이는 한국시리즈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네일은 1차전에 선발 등판해 승패 없이 50이닝 1실점을 기록한 뒤 4차전에서는 5.2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라우어는 3차전에서 5이닝 2실점에도 패전 투수가 되는 불운을

안았다.

네일과 라우어가 세 경기를 선발로 책임지며 15.2이닝을 최소 실점으로 막아낸 반면 레예스는 마운드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다. 레예스는 3차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자책(1실점) 호투를 펼쳤으나 2차전에서 황동재가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는 등 코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타선에서도 소크라테스와 디아즈의 존재감은 달랐다. 소크라테스는 1차전에서 4타수 1안타에 그쳤으나 1타점 1득점을 생산했다. 2차전에서도 4타수 1안타에 그쳤지만 1득점을 만들어냈고, 3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친 뒤 4차전에서는 썩기 투런포를 포함 3타수 2안타 2볼넷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소크라테스가 4차전까지 5타점과 4득점을 생산하며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반면 디아즈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으나 공격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1차전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친 디아즈는 2차전에서 5타수 4안타를 뽑아냈으나 1득점에 머물렀다.

또 3차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4차전에서는 4타수 1안타 1득점에 그쳤는데 2-9로 뒤진 8회말 1사 1루에서 병살타를 치며 추격의 불씨가 꺼졌다. 승패가 사실상 갈린 상황이었으나 5차전을 대비, 분위기가 반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장면이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지난 26~27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과 염주테니스장에서 열린 제20회 광주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각 부문 입상자와 김광희 광주테니스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테니스협회 제공**

제20회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성료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광주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전남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은 열린 기량을 펼치며 화합의 큰 잔치를 열었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제20회 광주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지난 17일과 26~27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과 염주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클럽단체전, 여자부, 지도자·동호인부, 혼합복식부, 남·여 초급자부, 시니어부(형님부·동생부) 등 8개 부문에서 각축을 벌였다.

클럽단체전 우승컵은 상록클럽이 들어 올렸다. 준우승은 전라클럽, 공동 3위는 토요피닉스클럽과 한외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여자부는 조영희-오준순 조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은-김세정 조는 준우승을, 최주현-이현 조와 최은선-김은숙

조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지도자·동호인부 우승은 양성모-김인태 조가, 혼합복식부 우승은 유준연-신나영 조가, 초급자 남자부는 조형선-서정민 조가, 초급자 여자부는 이승은-명소연 조가, 시니어 형님부는 김창호-김성열 조가, 시니어 동생부는 심중현-최원만 조가 각각 차지했다.

대회기간 테니스 엘리트 선수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해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유아·초등학교생 테니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매직테니스부 경기도 진행돼 테니스 경험을 쌓게 했다.

특히 대회 첫 날인 지난 26일 오후 4~6시 한국도로공사 테니스단의 재능기부 동호인 강습회도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 최중현 감독과 선수 등 6명은 9번코트(초급자)와 10번 코트(중급자)에서 사전 참가 신청한 동호인 33명을 대상으로 테니스 기본기와 자세 교정, 포핸드, 백핸드, 스매싱, 서브 등 테니스 기술 등 원포인트 강습에 나섰다. **최동환 기자**

광주·전남 공사 15명, 광주세계양궁선수권 태극마크 정조준

오늘부터 청주서 국내 2차선발전
1차 관문 통과 남여 각 64명 출전

광주·전남 공사 15명이 내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 태극마크를 향해 정조준한다.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2025년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리커브)이 무대다.

이번 2차 선발전은 지난 9월 27~28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64명이 참가, 태극마크를 향한 치열한 열전을 펼친다.

이번 2차 선발전은 △29일 1, 2차 토너먼트 △30일 1회차 토너먼트, 2회차 리그전 △31일 1, 2회차 토너먼트, 3회차 70

m 3발 5세트(4회) 기록경기로 진행된다.

31일 경기 후 1차 선발전 역배점과 1회전(48점), 2회전(64점), 3회전(64점) 결과 총점 합계로 남녀 32명을 선발한다.

이어 △11월 1일 1, 2, 3회차 토너먼트(32점) △2일 1, 2회차 토너먼트, 70m 3발 5세트(4회) 기록경기(32점)를 치러 32명 선발전 역배점을 합산한 총점 합계로 리커브 남녀 각 20명을 가린다

이번 2차 선발전에 광주·전남 공사 15명이 출전한다.

광주에서는 전 국가대표 김수린(광주시청·3위),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10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11위), 2024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21위), 김이안(광주은행텐텐양궁단·31위), 이가영(광주시청·60위)이 나선다.

전남은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14위), 이은경(순천시청·25위), 유시현(순천시청·51위), 탁혜윤(순천대·63위)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11위), 이원주(조선대·42위), 진효성(조선대·44위)도 2차 도전을 이어간다.

‘고교생 공사’ 박주혁(광주체고·47위)과 조한이(순천여고·47위)의 ‘무한 도전’도 기대를 모은다.

최동환 기자

전남 김동옥·허윤정 3관왕… 광주 정봉기 한국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일차
광주·전남 한 자릿수 순위 유력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5일 경남 일원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4일차인 28일까지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메달 잔치를 펼치며 나란히 한 자릿수 종합 순위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현재(오후 5시30분 기준) 금메달 58개와 은메달 46개, 동메달 41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5위,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35개와 은메달 40개, 동메달 56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9위에 올라 있다.



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 김동옥(왼쪽)과 허윤정(가운데).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이날 오전 열린 혼성 도로 H팀 릴레이 9.6km H 결승에서 19분21초03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김동옥은 지난 25일 남자 개인도로 14km H2와 27일 남자 개인도로 35km H2에서, 허윤정은 지난 25일 여자 개인도로 14km H3와 여자 개인도로 49km H3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광주 선수단에서는 한국신기록의 주인공 공이 나왔다. 수영의 정봉기(아라마크)는 이날 오후 열린 남자 배영 50m S2 결승에서 51초88의 기록으로 터치 패드를 찍으며 2019년 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53초78을 1초90 앞당기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규빈 기자